

보도자료 (한국어)

ASEAN+3 지역 경제는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및 대외 역풍 강화에도 불구하고, 복원력(resilience)을 유지할 전망

역내 회원국들은 상호보완성을 활용하고 기술을 적극 수용하면서 다자주의 및 역내 통합을 강화해야

피지(Fiji), 2019년 5월 1일 -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가 금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 - 2020년 중 ASEAN+3 지역 경제는 글로벌 리스크 고조 및 대외 역풍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둔화에 그치면서 복원력(resilience)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AMRO는 역내 거시경제 감시보고서인 'ASEAN+3 지역 경제전망 (AREO,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2019'를 통해 역내 경제전망과 회원국들이 직면한 리스크 및 도전과제들을 평가하였으며 '신경제를 위한 연결성 및 역량 구축 (Building Connectivity and Capacity for the New Economy)'이라는 제목의 테마 연구분석도 수록하였음.

AMRO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Khor Hoe Ee(코 호에) 박사는 "ASEAN+3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5.3%에서 2019년 5.1%, 2020년 5.0%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도 "역내 회원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만약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용 정책여력(available policy space)을 활용해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

ASEAN+3 지역이 직면한 하방 리스크는 주로 대외적 요인들로서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및 세계경제의 더 가파른 하강(sharper slowdown), 금융시장발 변동성 쇼크 등이 포함. ASEAN+3 지역의 경제전망은 다소 하향조정되었으나 역내 장기적 펀더멘털은 중산층의 부상, 빠른 도시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견조한 역내 소비 및 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고한 모습. 다만 하방 리스크가 더욱 뚜렷해진 상황인만큼, 정책 입안자들은 안주할 수 없음. 현재의 거시금융정책 기조들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역내 회원국들은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견일할 수 있도록 정책조합(policy mix) 재조정(recalibration)에 나설 준비가 필요. 필요한 경우 통화정책 스탠스의 일부 완화 내지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의 지속을 비롯, 구조개혁(structural adjustments)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목표가 뚜렷한(targeted) 재정정책과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 등이 이에 포함. 한편 금융 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ies)이 누적되지 않도록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함.

ASEAN+3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들은 장기적 정책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성장기회로 활용하거나 신경제 국면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역량 구축 및 연결성 강화 중심의 정책이 필요. 이와 관련 2019년 AREO 보고서에서는 역내 국가들이 수출 중심 제조업 전략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번영기를 누린 이후 앞으로 어떻게 연결성 및 역량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테마 연구분석도 제시.

역내 역량 및 연결성 강화가 구체화되기까지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동인이 작용할 전망. 1) 4차 산업혁명, 더 넓게는 신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상 중인 새로운 수요; 2) 중산층이 늘어나고 점점 부유해지는 등 성숙단계에 들어선 동아시아의 인구구조; 그리고 3) 역내 수요 확대와 무역·기술분야의 보호주의 역풍 간의 긴장 관계 등임.

이런 배경 속에서, 역내 개도국들은 성장에 대한 3가지 주요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음 - 즉 펀딩갭, 외환갭, 그리고 팩터갭이 문제. 펀딩갭(funding gap)이란 국내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공공 인프라 포함)과 국내 저축으로 융통 가능한 자금 간의 차이를 의미. 외환갭 (forex gap)은 신흥국들이 급격한 자본 유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축적함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파이낸싱 제약. 팩터갭(factors gap)은 비금융적 제약으로서 인적자본이나 전문성, 기술 역량 및 지배구조 체계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입요소 갭을 의미.

이같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ASEAN+3 회원국들은 지역내의 저축 및 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함. 아울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CMIM)을 비롯 역내 금융안정망을 강화해야 하며; ASEAN+3 지역의 기술적 역량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성장과 지배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가로 요구됨.

Khor Hoe Ee(코 호에) 박사는 “ASEAN+3 지역의 빠른 경제 성장은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촉발하게 될 것이며, 부족한 투자자금을 충당하는데 집단적 관심이 한층 집중될 것”이라며 “기술 집약적이며 서비스 중심인 신경제로 전환이 이뤄지면서 ASEAN+3 지역이 직면하고 있던 기존 갭에 대한 부담이 더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개도국들은 반드시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역내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해야함. 따라서 ASEAN+3 지역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더 기술(technology), 통합(integration) 그리고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적극 수용해야 하며, 역내 금융안정망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언급.

AMRO 소개:

ASEAN+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홍콩 포함)·일본으로 구성된 ASEAN+3 지역의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역내 국제기구임. AMRO의 주요 책무로는 역내 거시경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협정 (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의 실행을 지원하는 한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함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연락 담당:

Huong Lan Vu (Ms.), Public Relations Officer,
Email: vu.lanhuong@amro-asia.org
Mobile: +65 88763598
Website: www.amro-asia.org
LinkedIn | Flickr | YouTube: AMRO Asia

Disclaimer: 본 한국어 자료는 영어 원문 자료의 번역본으로서 (스캔 후 다운로드 가능). 번역본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 국문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함.

